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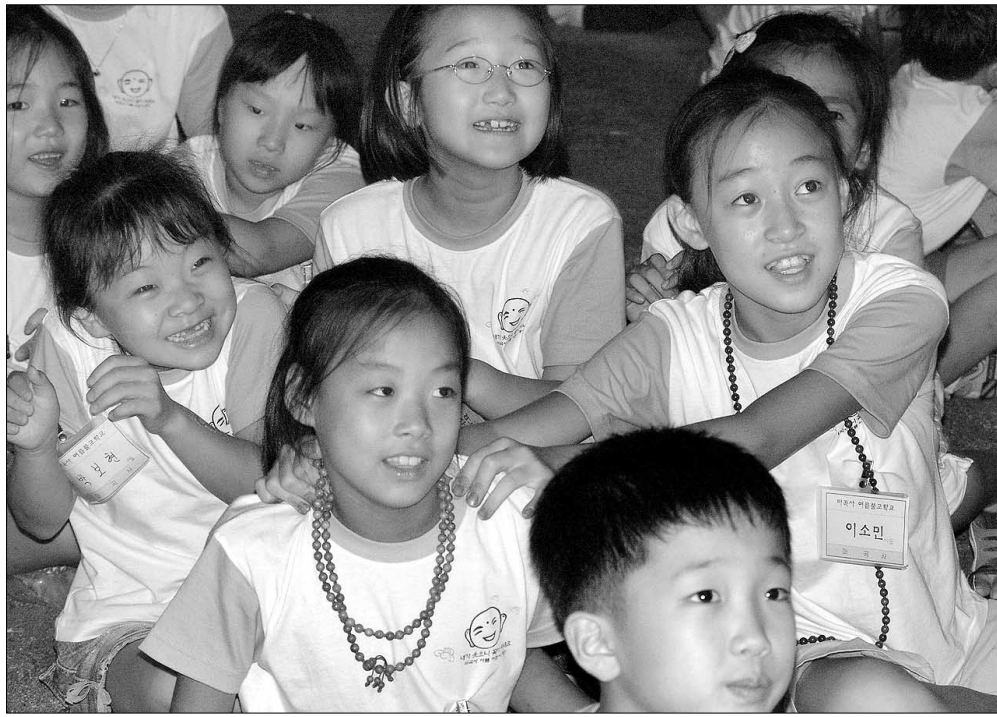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지금 불교계는 어린이·청소년 불자층의 감소로 인해 불교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불교인구는, 개신교(50.2%)+천주교(15.5%)에 비해 절반 수준인 31.5%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린이·청소년 불자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없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불보듯 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마당은 좁혀줄 필요가 없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

한국불교 미래, 전문지도자 양성에 달려있다

- 글 쓰는 순서 ●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 13. 기저방담

■ **지지부진한 청소년 포교, 문제점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어린이 법회를 열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1389곳 중 29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1만여 명에 불과하다. 청소년 법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단의 적극적인 지원, 사찰의 원력, 우수한 지도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사진은 여흥불교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경남도 지역에서 보령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정은 스님(세원사 주지)은 "스님과 청소년 지도자가 강한 원력만 세운다면 청소년 포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현재 보령시는 불교계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 중 하나다.

세원사를 창건하던 1989년, 보령시 주민은 약 2000세대로 중·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청소년 포교를 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스님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를 설립하고 시내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냈다.

1995년 개소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인식을 천천히 바꿔나갔다.

이렇게 세원사는 충남지역 청소년 포교의 거점 사찰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2억 원을 지원받아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열었다.

정은 스님은 "사찰 재정이 어려운 곳은 정교련이나 파라마타 등의 청소년 단체에 반드시 가입해 행사보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이라면 청소년 지도자 사나 청소년 상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갖

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거창 정토사주지 수련의 경우 어린이 법회를 열자 전체 신도수도 늘어났다. 농촌인구가 대폭 줄어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법회조차 열지 못하는 주변사찰들의 정황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다. 정토사는 20년 전부터 어린이 포교에 매진, 현재도 스님들이 봉고차를 운전해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 이러한 열성적인 법회 운영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부모들까지도 사찰 신도가 되고 있다.

수련 스님은 "농촌에서는 사찰이 운영을 하는 봉고차가 꼭 있어야 포교가 가능하다"며 "정토사 스님 5명은 모두 1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법회에 오고자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는 심정으로 포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도자 교육 꾸준히 이어져야**

청소년 포교영역에서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지도자와 청소년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포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불자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할 만한 기관은 많지 않다. 현장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중단이 앞장서 지도자 교육이나 제도적인 지원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계

와 천주교 계열 학교들은 이미 종교성을 내세운 사회복지학부를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불교계 종합학교인 동국대학교 내에는 청소년학과가 없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산 스님은 "사회체육학과를 증원해 청소년체육지도학을 전공한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종합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프로그램 다양화로 승부**

'N(Network, Next, New type)세대'를 대상으로 포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교 전략프로그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부산 금화사주지 대인 어린이 법회의 경우 한 달에 두 번씩 PC방에서 포교활동을 할 뿐 아니라 필질방 수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절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편견

나 e-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과 지도법사가 실시간으로 리플을 달아주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일회성 행사는 그만**

의정부 지역 모 교회는 여름방학 성경학교에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비 3000원을 받고 게임기, 롤러블레이드, 자전거 등 각종 경품을 내걸었다. 마치 그물로 고기를 낚듯 인근 아이들을 씩씩하게 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는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의 과감성에도 분명 배울 점이 있다. 조계종이 2005년을 기준으로 어린이·

출가자에 청소년 포교 실습 의무화 기금조성·지도자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N세대 특성 반영 프로그램 다변화를

에서 벗어나 N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법회를 줄이고, 대신 참선실수나 영어법회, 청소년 상담 등으로 아이들과의 접근을 꾀하는 사찰도 있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학당, 방과 후 공부교실, 연극·영화 관람 등을 통해 아이들의 문화공간을 겸한 놀이공간으로 거듭나자 자연스럽게 어린이 법회참석자도 늘어났다. 특히 주지 성원 스님은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어린이 집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장에서 포교에 임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교에 응용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사용 용도로는 인터넷 이용이 87%를 차지했다. 이 같은 N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통한 문자포교

청소년 포교에 책정한 예산은 2억 원 남짓. 단위사찰이나 종단이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무조건 방치 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어린이·청소년포교를 위한 기금 조성도 고민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나서지 못하는 사찰은 기금조성에 동참하고, 이들의 포교를 전담하는 사찰에 기금이 전제지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불교계는 끊임없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왔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이 일시적인 행사성 기획에 불과했다. 사찰건물을 증축하고 짓는 불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인재불사 없이는 불교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종단의 정책과 사찰의 원력, 전문 지도자의 양성과 활발한 현장활동이 어우러지는 인프라 구축이 바로 불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

조용수·이은비 기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공청회

우리 위원회는 3회에 걸쳐 불교대학의 교육목표를 비롯하여 학과편제 및 교과과정, 우수교원 초빙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제4차 공청회에서는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졸업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방안

- 일 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사회 : 학담 스님(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
- ◆ **발제 및 논평** (오후 1시 ~ 3시)
 1. 제 1주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과 개선방안
 - 발제 :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문화학부)
 - 논평 : 조의연 교수(동국대 학생처장),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2. 제 2주제 :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협력방안
 - 발제 : 화랑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논평 : 김용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용 행정관(청와대)
- ◆ **종합토론** (오후 3시 ~ 5시)
 - 지정토론 : 불교계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 방청토론 : 참석대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 02)2260-3768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사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법패의 깃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법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법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00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옥,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00명	6개월
특수반	복청계, 천수바라, 도량계, 다게, 사다라니, 나비춤	00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 수록재, 점안의식	00명	6개월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수시 접수
- 문의처: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